

教師教育 再構想을 위한 一般指針

劉 仁 鍾
(高麗大 教育學科 教授)

◇ 이 글은 1983년 7월 15일 미국 Washing- ◇
◇ ton D. C.에서 열린 세계교사교육협의회 ◇
◇ (Inter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for ◇
◇ Teaching) 제30차 총회에 한국 대표의 一 ◇
◇ 員으로 참석한 筆者가 會議기간중 英文으 ◇
◇ 로 發表했던 論文으로서 編輯部가 이를 完 ◇
◇ 譯하여 게재합니다. …………… <編輯者 註> ◇

1. 基本原則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한 教師教育을 再構想함에 있어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이 일반적인 지침으로 고려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사의 專門性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 기회의 보편화에 비례해서, 그리고 아직은 가치에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여교사들이 교사직종에 물리는 추세에 따라, 또한 교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다른 노동분야나 직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뒤쳐진 이유로 해서 가르치는 교사직업의 전문적 성격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사의 감지될 수 있는 실제적인 質은 원래부터 있을 수 있는 전문성의 정도에 상당히 의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기대

되는 전문성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교육은 청소년에게 人間性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人品(인성)이 학생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발달의 형성단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교사는 학생의 성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학생은 결국 교사의 성품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는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학생관계가 축적되면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로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인 산업화로 비롯된 현대사회의 非人間化를 교육이 矯正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교육기관은 세계 속에서 인간성을 심어 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책임이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이 무거운 책임이 교실에 있는 교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교사에게 이러한 기대가 오래 전부터 주어져 왔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교사가 먼저 그 자신이 인간화되어야 하고, 교사교육이 모름지기 人性開發을 촉진하는 배움의 장을 제공해야 한

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째, 현대의 어느 敎育課程이라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간 統合的 接近이 먼저 핵심적인 요인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학문분야와 지식의 새로운 체계는 갈수록 점점 細分化되고 있는 반면에 연구 원칙에 있어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이런 학문영역간의 교차는 교육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주며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勞働市場에서 한 분야에 정통한 편협한 전문가보다는 다방면에 이해를 가진 일반 敎養人의 기술이 오히려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교사교육기관은 제 학문 영역을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에 능동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커리큘럼은 현대 우리 시대가 새롭게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학문분야에 대처해 나가는 데 필요한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네째, 교사 또는 교수의 성격 자체가 독특한 社會階層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전통적인 교사교육의 일면이 되어 왔다. 교사가 소수의 선택된 학생들만을 받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현대사회에서 교사는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해야만 한다. 비기능적인 地位觀念을 고수하면서 교사가 이제 그의 동료나 그의 학생들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民主主義에 기초한 능동적인 선거민을 만드는 일은 교육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던 바이고, 이는 결국 사회의 일반대중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장래의 촉망되는 교사들이 첨단으로 개발되는 기술에 접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은 필수적인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사교육체제에 있어서 취약점의 하나는 새로운 것이나 낯선 것에는 무관심을 일으키는 두려움이며, 새로 부상하는 기술을 교육과정에 응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재래적인 敎授法이 아직도 교수영역에서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시청각 기술과 컴퓨터와 같

은 혁신적인 媒體手段이 거의 應用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혁신적 교수법의 형태도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첨단 기술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사의 집단은 교사교육 과정에서 기술혁신 내용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21세기 교사교육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술개발의 지식이 쉽게 전수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II. 一般指針

다가오는 21세기의 교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관심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 敎育行政 組織

이상적인 교사교육기관은 한 독립 단과대학으로서가 아니라 綜合大學校 속의 한 기관으로 있을 때 그 존재 의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종합대학교 속에 사범대학이 있다고 해서 자율성이 희생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독립 단과사범대학이라도 좀더 규모가 큰 대학교에 가담해서 敎育協同體制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인문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며,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가능케 하며, 유능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21세기에 있어서 교사수요 구조에 융통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모든 교육 수준에 필요한 교사—즉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사, 특수아를 위한 교사, 카운셀러, 행정가 및 학교 심리학자 등—들이 광범하면서도 선택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기회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종합대학교의 환경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교사교육기관의 卒業生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4년제 과정(學士學位) :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 5~6년제 과정(碩士學位) :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상담교사, 중견 행정가

- 6~7년제 과정(博士學位) : 학교심리학자, 상급(고위)교육행정가

2. 學生選拔

교사교육은 다른 전문직 직업과 비교해 볼 때 修學年限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할 수 있다. 통일되고 표준화된 行動樣式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專門職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국제적으로 교사직을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고하게 해 줄을 뜻한다. 어떠한 수준의 교사이든 최저 자격은 學士學位 소지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는 教育資格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5~6년 과정
고등학교 교사 : 학사학위 소지자
중견 행정가 : 학사학위+5년 교수 경력이나 행정경험
- 6~7년 과정
고위 행정가 : 석사학위+5년 교수 경험이나 행정경험
전문 심리상담자 : 석사학위+3년이상 상담경험

3. 커리큘럼

교사교육의 새로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서 짜여져야 한다.

첫째, 커리큘럼은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을 연결하는 接合過程을 제공해야 한다. 집합과정이라 함은 서로간 내용에 있어서 겹치는 것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相互關係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教育學과 다른 教科目간의 結合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학적인 이론과 학문의 다른 교과목 사이에서 발견되는 갭(gap)은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데 주요한 장애가 된다. 교육과정 구성의 초보 단계는 教育學을 다른 학문들과 결합시켜, 그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째, 교육과정은 이론지향적이기보다는 現實志向의이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과목이 간혹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일상 교육경험에서

우려나는 주장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있다. 이론에 대한 偏重이 외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도입된 새로운 모델을 맹목적으로 답습하게끔 한다. 반대로 실제에 바탕을 둔 교과내용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가능케 하여 실제 가르치는 상황에서 부딪치는 요인들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고려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실제에 바탕을 둔 교과내용은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과과정은 이론과 실제경험과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修習過程과 任命

교사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임명전에 修習過程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건이다. 필수 학점을 마치자마자 교사지원자는 일정기간 교사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을 밟도록 하여 임시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수습과정을 마쳐야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범학교에서 實習을 받는 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교수학생(敎生)이 다른 과목의 학점을 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敎生은 수습과정을 통해 더 많은 교수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교사교육이 綜合大學이나 또는 大學協同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특히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5. 現職教育

현직교육은 직전교육보다 더욱더 강조될 여지가 있다.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따라 현직교육의 필요성은 새로운 교육이론 및 방법론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직교육은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고 昇進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며, 상위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현직교육의 형태는 교사의 승진에 특별한 참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學校와 政府關係

학교와 정부간 어떠한 접촉도 학문의 순수성과 학문의 자유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기관의 역할은 단지 형식적인 감독 기관으로서 교육을 支援하거나 補助하는 것으로 끝나야만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 정부기관이 있다 하자. 하지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학력, 정책, 또는 실습 등의 자격규정은 학교공동체의 권한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적인 노력이 계속될 때 교육은 法的으로나 倫理的으로나 정치기관의 간섭, 또는 영향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있을 것이다.

Ⅲ. 맺는 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은 學位를 수여함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秀越性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적이고 일괄된 期待値에 부응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당파적인 교육자 협회나 또는 교육행정가 협회가 自律的인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것의 기능은 교육실습을 점검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필수 요건에 비추어 탁월성의 기

준을 정하는 것 등이다. 이 評價機關의 권한과 권위는 구성원의 축적된 높은 교육적 덕망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전문직에서 나타나는 왜곡이나 부패 등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심중팔구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한 국가의 政府는 집합적인 교육자료에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일반적인 필요나 추세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러한 情報은 대학이 사회에 최대로 봉사하도록 지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만약 적절하게만 이용된다면 이것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보조나 영향력은 본질적으로 指導的인 것이 되어야 하고 대학의 학문적인 自由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현대의 교사교육에 관한 한 全敎育과 訓練過程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교육은 정부와 대학의 공동책임이라 볼 수도 있다. 수습과정에 있는 교사의 봉급은 교사전문직에 우수한 학생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높아야만 할 것이다. *